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집에 앉아 있으면서 놀라운 영적 순례를 하고 있다. 너희들의 순례는 지각으로 하는 순례이다. 행위를 행하는 동안에 이 순례 길에서 계속 전진해라, 그러면 너희가 순수해질 것이다.
- 질문:**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한 어떤 것들에 관해서, 너희가 오직 지금 이때에 지식의 길에서만 듣느냐?
- 대답:** 남녀인 너희 모두가 영혼이며, 지고의 영혼 쉬바의 신부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한 분인 신이 신랑이다. 그 다음에 몸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쉬브 바바의 손자, 손녀들이다. 우리들은 그의 재산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인 21생 동안의 끊임없는 행복을 차지한다. 이것은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운 측면이다.
- 노래:** 우리들의 순례는 독특합니다.

옴 산티. 신봉의 길에 있는 자들이 물리적인 순례와 영적인 순례에 관한 이 노래를 작곡했다.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자들을 기억한다. 인간들은 모두 오직 물리적인 순례에 대해서만 알뿐이다. 그들이 여러 생 동안 육신으로 순례를 다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각에 그저 바드리나트, 슈리나트 등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너희 자녀들도 역시 육신의 순례들을 기억해왔으며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은 여러 생 동안 순례를 다니곤 했다. 이제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는 영적인 순례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다. 사람들이 지각으로 하는 요가는 물리적인 순례에 대한 요가이다. 너희들은 지각으로 영적인 순례에 대해서 요가를 한다. 낮과 밤의 차이가 있다. 이제 너희는 영적인 순례를 하면서 전진하고 있다. 너희들은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 경이로운 순례를 한다. 어느 누가 이 순례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사업 등에 전념할 때는 그것을 그다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지식의 대양을 되새기려고 앉아 있을 때는 너희가 순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기억할 것이다. 이 지식은 아주 쉽다. 너희 자녀들은 정화자 아버지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모든 이를 순수하게 만들 순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니르바나의 즐거운 나라이며, 모든 신봉자가 그것을 기억한다. 신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지, 우리가 신에게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루와 조상들이 니르바나의 나라, 또는 비물질 세계로 갔다고 믿는다. 좋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그냥 거기에 앉아 있기만 했느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 저들은 그저 아무개가 저 너머, 니르바나의 나라로 갔다느니, 빛이 빛에 합쳐졌다는니, 파도가 대양에 합쳐졌다는 말만 한다. 그들은 세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이제 아버지가 너희에게 설명한다: 너희들은 이 마지막 생에서 단 한번만 영적인 순례를 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영적인 순례, 또는 영혼들의 순례라고 부를 수 있다. 우선 먼저,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몸을 가진 영혼들은 슬픔을 경험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영혼들이 몸을 지닐 때, 그들은 아버지를 찾고 있는 신부들이다. 남자건 여자건 모두 신부다.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신부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오하고 애매한 측면들이다. 너희들은 자신을 쉬브 바바의 손주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너희가 몸에 들어 있을 때는 손자와 손녀들이다. 너희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부유한데 그의 아들이 가치가 없다면,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는 일도 가능하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재산은 태초부터 왕가에 있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 너희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쓰고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는 할아버지에게서 너희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참으로 엄청나다! 너희들은 21생 동안 끊임없는 행복의 재산을 차지한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할아버지이다. 브라마는 바바라고 불린다.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서 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너희는 말한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는 너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렸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 즉 자가담바와 자가드피타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그들만큼 고귀해지고 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한다. 너희들은 왕국을 받는다. 너희들은 그 주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안다. 아주 많은 요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누구에게든 설명하면, 그들은 점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 모든 이가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모든 이가 신, 아버지를 믿는다. 저 손위의 분이 할아버지이고, 브라마는 그의 아들이다. 브라마라는 이름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비슈누도 샹카르도 프라자피타라고 불릴 수 없다. 서틀 리전에서는 피조물이 창조될 수 없을 것이다. 브라마는 반드시 여기에서 브라민들을 창조할 것이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브라마의 연꽃 입을 통해서 브라민 공동체를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기독교 공동체를 창조했고, 아브라함은 이슬람 공동체를 창조했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이름들이 언급된다. 샹카라차리아도 역시 피조물들을 창조했다. 모든 나무에 가지와 잔가지들이 있다. 이것은 무한한 나무이다. 그것의 창조자, 씨앗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유명하다. 밑동이 저 위에 있고, 씨앗이 맨 꼭대기에 있다. 그렇지만 인간들에 의한 가지와 잔가지들, 즉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있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씨앗인 아버지가 직접 이브라마 쿠마리스 단체를 창조했다. 그는 씨앗,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며, 저 위에 거주한다. 모든 가지와 잔가지들의 씨앗(창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맨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정교한 내용들이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언제나 저 위에서 기억된다. 그리스도는 저 위에 있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이름, 형태, 장소와 시간은 항상 똑같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지금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항상 똑같이 남아 있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너희가 천상의 16도로 완전하고 그 다음에는 14도가 되고, 그리고 계속 도수가 줄어든다. 황금시대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지금 이때에 우리들은 맨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올라가는 길이고, 저것은 내려가는 길이다. 이 한 분에 대한 찬양은 아주 대단하다. 정화자는 단 한 분뿐이다. 모든 이가 한 분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를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 육신의 존재들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정화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한 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불릴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녀들 외에는 어느 누구의 지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서도, 그것은 등수대로이다. 너희들이 할아버지의 손주들이며, 바바의 집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이해한다. 그 할아버지도 역시 여기에 와 있다. 그가 틀림없이 여기에 강림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는 지고의 지역에서 온다. 우리의 저 할아버지는 영적인 반면, 다른 모든 할아버지들은 육신을 가졌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들은 기빠서 뛰어야만 한다. 비록 왕들이나 왕족들이 대단히 부유하지만, 그러나 할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천국의 주권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황금시대에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잇는다. 거기에서는 락쉬미와 나라얀조차도 누가 자기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줬는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자신들이 예전에는 무엇이었는데도 역시 이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경이로운 내용이다. 락쉬미와 나라얀은 누가 자기들의 왕국을 주었는지 모른다. 너희 브라민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모른다. 너희들의 지위는 신인들의 지위보다도 더 높다. 여기에서 너희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 브라마가 정말로 아버지라는 것과, 할아버지가 그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달리 그가 어떻게 불순한 자들을 정화하러 오겠느냐? 모든 영혼들이 저 위에서 내려와 몸을 택한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 들어 있다.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신이 더 크고 영혼들이 더 작다는 뜻이 아니다. 지고의 영혼과 영혼들은 크기에는 차이가 없다. 신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아주 평범하다. 내가 와서 불순한 모든 이를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에 대한 칭송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나 역시 하나의 영혼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준다. 영혼은 더 커지지도 더 작아지지도 않는다. 영혼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시든다. 빛이 꺼진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지식의 기름을 부으면 빛이 점화된다. 그렇지만, 영혼이 무엇이나? 그것은 불꽃은 아니다. 영혼은 지고의 영혼처럼 서늘하다. 그는 모든 이를 서늘하게 식혀주는 한 분이다. “팔다리가 차분한 자들...”이라는 말이 기억된다. 그 한 분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팔다리는 차분해진다. 그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매우 침착해진다. 바바가 얼마나 침착한지 너희는 안다. 서늘하고 뜨겁다. 그들은 정욕의 장작더미 위에 앉음으로써 심하게 불타 왔는데, 묻지도 말아라! 일부는 참으로 대단히 죄 많은 영혼들이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뿌려줘도 그들은 식지를 않는다. 개인 각자에게 아주 많이 노력을 들여야 한다. 바바가 묻는다: 너희들은 서늘하게 식었느냐? 산야시들 등은 이런 질문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마야는 모든 이를 불순하게 만든다. 그들은 정욕의 장작더미 위에서 계속 불태워진다. 너희들이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쉬브 바바가 할아버지이니 너희는 그의 유산을 받아야만 한다. 바바가 한 분 있고, 다다(할아버지)가 한 분 있으며, 많은 자녀들이 그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다. 다른 어떤 인간도 프라자피타라고 불릴 수 없다. 쉬브 바바는 어쨌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다. 이제 너희 자녀들은 그의 앞에 직접 앉아 있고, 너희들은 자신이 쉬브 바바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천국의 창조자이다. 그는 할아버지이다. 너희들은 그에게서 라자 요가를 공부하고 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천국의 재산을 받고, 그래서 21생 동안 가난에 찌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매우 부유해진다. 숭배받을 가치가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숭배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바바에게서 유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너희가 21생 동안 행복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아주 여러 번 너희의 유산을 차지했었고 잃었었다. 너희들은 그저께 유산을 차지했고, 어제 그걸 잃었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이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잃을 것이다. 오직 지금 이때에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안다. 지금 이때에 너희는 지식으로 충만한 아버지, 지식의 대양을 통해서 지식의 대양 마스터들이 되고 있다. 너희들은 지식을 받는다. 너희들 중 누구 하나라도 밝은 빛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칭송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크리슈나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은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했다고, 크리슈나에 대한 칭송이 일컬어진다. 그때는 어차피 낮, 천국이였다. 어쨌든 빛이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칭송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신이지만, 그에 대한 모든 찬양은 그의 행위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많은 이들에 대한 칭송이 있어왔다. 사람들은 “아무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천국이 저 위에 있느냐? 딜와라 사원에서는 천장에 천국이 묘사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아디 데브와 아디 데비, 즉 자가드피타와 자가담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아래인 지옥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 가려고 라자 요가를 공부하고 있다. 그것이 정확하고 동일한 기념비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우리들도 역시 와서 여기에 앉아 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다! 너희 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속했으니 너희의 행복의 수은주가 치솟아야만 한다. 너희들은 순수한 세계의 주인이 되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도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저것은 물리적인 노력인 반면, 이것은 미묘하다. 영혼이 노력해야 한다. 자파티를 굽거나 사업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영혼이 한다. 바바가 지금 너희 영혼들을 이 영적인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것과 함께, 너희는 또한 세속에서의 너희 일들도 해야 한다. 너희들은 자녀들 등을 돌봐야 한다.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이 애들은 당신의 아이들이니 그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만일 바바가 모든 이를 다 돌봐야 된다면, 그렇게 큰 건물은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델리 요새만큼 큰 건물을 백 채 가진다 한들,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어디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만한 수용능력을 가진 건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노력하는 것이 법이다. 만일 그 많은 수의 아이들이 모두 여기에 온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계속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다: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할아버지에게서 끝없는 보물들을 받는다. 그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다!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라마가 갔을 때 라반도 역시 갔다"라고 기억된다. 미래에 너희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비전으로 받아서 계속 볼 것이다. 너희들이 집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너희는 그 나무들 등을 볼 것이다. 더 가까이 가면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것이다. 바바는 이 지식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아버지처럼 차분해져서 지식의 물방울을 뿌려주어 인간 영혼들을 서늘하게 식혀주는 봉사도 역시 해라.
2. 할아버지의 재산을 기억하며 끝없는 행복 속에 머물러 있어라. 영적인 사업을 해서 세계 주권을 차지해라.

축복: “모든 이가 행동하게 만들고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도구가 되고, 모든 행위를 행하면서 태평한 황제가 되어라.

“모든 이가 움직이게 만들고 계신 분이 내가 움직이게 만들고 계시고, 모든 이가 행동하게 만들고 계신 분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계속 도구로서 모든 행위를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태평한 황제로 머물 것이다. 만일 너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경우에는 너희가 태평한 황제로 머물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었다는 의식을 가지면 너희가 태평함과 태평한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런 영혼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만들고 있는 분이 전체 모든 이들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든 다 좋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든 아주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슬로건: 너희의 평화와 행복의 파동으로 모든 이가 행복과 편안함을 경험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